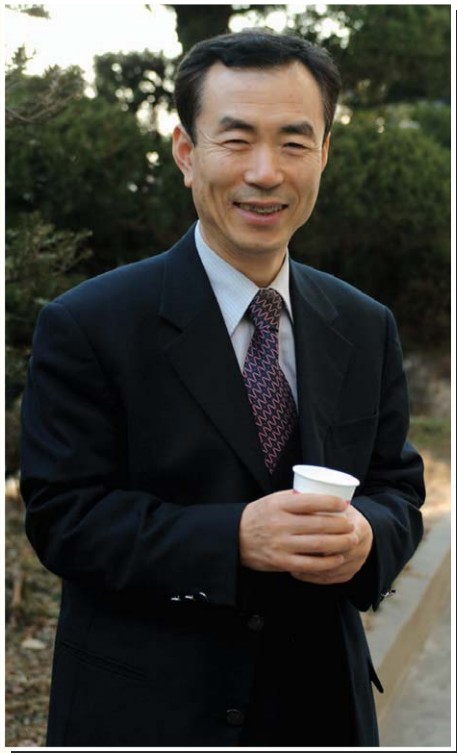


동북아시아대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이끄는 한 축!  
경기, 인천지역에서 산업인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가장의 산업재해로 인해 아파하는 것을 보면 편히 있을 수 없다는 사람들, 경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사람들이다. 개의 해인 2006년 열심히 뛰어다닐 이 곳에서 김근웅 산업안전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 경인지방노동청

## 산업안전과장 김근웅



생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재해율이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전국 평균 재해율 보다 상당히 높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어느 한쪽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예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구나 안전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재해! 그것만이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 평소 가지고 계신 산업안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산업재해는 고용유연성 확대에 따른 산재취약 미숙련근로자 증가와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산재인정 범위의 확대, 규제완화 등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의 떨어지는 안전의식과 안전불감증,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래반복형 재해의 지속적인 증가가 재해발생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현장에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무엇보다도 안전 의식을 주입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며, 사업장내 안전 제안제도, 불안정한 사례 또는 앗차사고 사례발표 등이 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명실공이 선진 안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선행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되시는지요.

안전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재해는 영세한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산업현장 근로자와 안전관계자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년 너무나 많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산업재해로 입게된 경제적 손실이 작년엔 무려 12조 4천억이나 됩니다. 우리 경인지역도 2005.10월 현재 사망 370명을 포함 16,595명의 재해자가 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의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고, 시설 투자가 없어 결국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투자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클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의지가 확고한 기업에 대해 시설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재해의 온상이자 일컫는 중소기업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지요.**

인천지역은 국내산업의 기반인 초기산업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서 공장 시설이 노후화 되고 안전시설 투자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은 기업의 이윤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한 노동력 생산에 치명적입니다. 건강한 노동력은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안전은 고용·복지보다 더 우선하여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유해·위험요인과 원활한 작업을 저해하는 요인(3D)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에는 클린사업을 통해 재정·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안전보건관리에 소극적인 사업장은 지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주는 등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2006년에 전개될 중점 안전관리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경인지방노동청은 산재예방 사업의 목표를 “안전의식 한 단계 높이기”라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청장이 직접 사업장 인근 장소를 활용하여 재해가 많은 지역과 업종의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통해 안전의식을 전파하고,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재예방 내용을 담은 공한문을 모든 사업장에 보내 안전의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 등에서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현장 방문 전 사전 예고를 도입하여 자율안전관리가 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즉, 지도를 위한 감독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러한 후에도 지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노사 어느 일방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사단체 및 정부가 합동으로 안전보건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보다 확고히 안전의식을 한단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최종덕 기자)